

부산저축銀 비리 정국 '뇌관' 급부상

여야, 6월 임시국회 앞두고 전문 고조 한미 FTA·반값 등록금도 공방 예상

다음달 1일 개최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비롯해 '반값 등록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제는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당장, 여야 모두 국정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제는 '반(反)민생' 범죄의 성격까지

있어 여야는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이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을 사태의 근원으로 진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로 접근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 한미 FTA 비준안이 엄청난 정치·경제적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6월 국회에서 선불리 이를 밀어

붙이지는 않을 분위기다. 당내에서도 미국 의회의 비준 이후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피해산업 보전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값 대학 등록금 = 여야 모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가 민생 행거의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 주도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지난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차상위계층에 대

한 장학금 지급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6월 국회에서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과학벨트 및 북한인권법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진행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진상조사특위 구성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단단히 따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확충 등을 통해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삼각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포럼 러브 코리아' 창립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민포럼 러브 코리아' 창립식에서 김정길 상임고문과 공동대표 등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방명록(전 광주시의회 의장), 윤복현(고구려대 겸임교수), 임형철(우리 겨레 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양승권(전 JC회장)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됐으며, 김정길 전 행정부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선임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손학규 본격 세확산 나서나

내달 전국 '통합연대' 창립 ... 친노·486세력 등 다양한 세력 흡수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인사들이 내달 전국 조직인 '통합연대'(가칭)를 창립한다.

통합연대 준비위 측은 29일 "지난 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광역권별로 준비회 간담회가 끝났다"며 "다음달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공동대표에는 김부겸 의원, 조성식 의원과 함께 원외에서 1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문단에는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포함됐다. 발기인은 각 지역의 대의원과 활동가 중심으로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마포모임'과 '선진평화연대' 및 '전진 코리아' 소속 회원 등도 통합연대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등 손 대표를 지지하거나 지원했던 기존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연대는 창립대회 후 전국 16개

시·도에 24개 지부로 두고 조직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당 혁신과 야권연대·통합을 위한 손 대표의 구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손 대표가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표인 김부겸 의원은 6월 초부터 기자간담회 등을 열고 통합연대의 목적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해나갈 예정이다.

통합연대 측은 "4·27 재보선 이후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가로막는 쓸데없는 이념갈등과 기득권을 지키보려는 움직임은 막을 수 있는 당의 중심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 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진영 등의 경계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손 대표 진영이 '대표 프리미엄'을 내세워 당내 인사 줄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합연대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손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친노, 486세력 등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세력의 연합체라고 보면 된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전대룰' 오늘 최종담판

당 대표권한 강화 놓고 초선·중진 대립양상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7·4 전당 대회의 경선규칙 개정과 관련, 지난 27일부터 28일 새벽까지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30일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협상에서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대해서는 현 당헌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당 대표의 권한 강화를 놓고 비대위 내 초선, 소장파, 중진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바람에 최

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을 놓고 초선·중진간 대립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초선 소장파들은 당 대표 권한 강화를 위해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을 요구했지만 중진들은 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하는 등 일부 권한을 강화하는 선에서 통합 선출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는 당 대표·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했을 경우 또 다시 '붕승야학당'이 될 수 있다며 분리 선출로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권·당권 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진들은 대표·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면 대표 경선의 경우 '1부 리그'가 되고 최고위원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하면서 당 대표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박근혜 기재위서 대결

손, 고민 끝 선택 ... 정책공방 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포진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정하면서 여야 유력 대선 주자 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손 대표가 14~16대 국회의원 당시에 도 기재위(재정위)에서 주로 활

동했다"며 "손 대표는 기재위 활동을 통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가 고민 끝에 기재위에 합류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부자 감세'와 관련,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법

인세 및 소득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추가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 감세 방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권권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유력 대선주자 간의 토론회를 볼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상임위 활동에서 밀리는 측은 추후 대선가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주승용 의원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민주당은 27일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주승용 의원을 임명하는 등 박영선 의장 선임에 따른 정책위 후속 인선을 완료했다.

정책위 부의장단에는 김진에 백재현 이상남 조영택 최영희 최중환 의원이 포함됐다. 정책위 산하 분과별 조정위원장은 장세환 서종규 김희철 장병완 박은수 김유정 의원이 임명됐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당부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욕으로 국가·당 절단나선 안돼"

한나라 이정현의원 "박 전대표 모략은 배은망덕"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 논쟁과 관련, "개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국가와 국민, 당과 당원을 절단내려 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 의원은 지난 27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05년 한나라당은 혁신위를 만들어 당 개혁을 추진했고 당시 혁신위원은 홍준표·박영준·이만호·임태희 의원 등 지금의

주류 일색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 한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게 혁신위원과 소장파, 그리고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요구였다"면서 "박 전 대표의 임기 단축까지 하면서 다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들 때는 국민과 당원 뜻을 물어 만들고 고칠 때는 사욕에 찬 몇 사람 맘대로 고치는 것이 쇠신

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 비상체제) 책임질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자숙해야 사내 대장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칙과 신뢰, 명분을 정치생명을 걸고 지킨 '필승 대표'를 제왕이네, 여왕이네, 그들이네 하고 중상모략하는 건 고약한 배은망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박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큰 자산이지만 동시에 아주 큰 그늘"이라고 말한 정몽준 전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선택여왕보다 섰 것 같다"고 언급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 CC
시/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친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코스관리팀	남/여	코스, 조경관리	경력/신입
시설관리팀	남	설비, 보일러, 전기	방화, 위험물관리 자격소지자
식음료팀	남/녀	조리사 웨이터/웨이츄레스 주부사원	경력/신입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복지제도]
기숙사 제공, 1일3식, 4대보험, 년차차가, 주1회 휴무 하계및 동계휴가 교통비 지원, 기업상해보험가입 등

[접수방법]
○ 우 편 : 전남 함평군 학교동 국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 스 : 061)320-7710
○ E-mail : seungtae01@naver.com
○ 전 화 : 061)320-7717(오승태)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1. 전부명령의 위험(확정판결, 어음공증)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입유 예치금이 있는 경우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5. 자녀가 성인(만20세)에 가까운 경우

법인회생

전문직(의사, 약사, 한의사, 법인사업자) 법인회생 특별상담해드립니다
(단, 고의적인 채무발생과 재산은닉등은 사기회생 및 파산절로 처벌받을수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사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 ▶ 대지 :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 ▶ 건물용 60% 유통단지
- ▶ 매매가격 : 6억2천만원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